

Sep.  
In  
Kandal

# Phlieng



좌충우돌 깎달팀의 9월이야기  
느그 여그 왜 왔노?



## Contents

Caritas 소개	· 002
Staff meeting	· 003
Atti week 준비 및 홍보	· 004
우리들의 여선생 동동&미미	· 006
이사 음식 돌리기 갑차전	· 007
여 백 많 은 지도 미미	· 008
사원에 가다	· 009
End poverty Campain	· 010
장보기	· 013
식구 (食口) 동동	· 014
회의	· 015
우리가비취진 곳 쌤못	· 016
Jam	· 017
Siem Reap 이너&소팻	· 018
그대들의 이야기	· 019
놈 놈 놈	· 021
못다한 이야기	· 027





# September

Mon	The	Wed	Thu	Fri	Sat	Sun
1	2	3	4 따끄마으 도착!	5 Caritas 방문	6 지역탐방	7 지역탐방
8 Staff 미팅	9	10 프싸 따끄마으 탐방	11 YDP,CDP 미팅 With Thanh,Saumnang	12 Atti week 홍보피켓 제작	13 이사음식 돌리기 & 마을 지도만들기	14 이사음식 돌리기 & 마을 지도만들기
15 이사음식 돌리기 & 홍보피켓제작	16 Staff 미팅 with Phirum	17 Atti week홍보 & 빈곤퇴치캠페인 사전조사	18 파고다 방문 & Youth들과 파티	19 빈곤퇴치캠페인 사전조사 & Atti week 홍보	20 ←	21
22	23	24	25	26	27	28
캄보디아 휴일 / 시엠립 여행 →						
29 CDP site 답사	30 Atti week홍보 & 빈곤퇴치캠페인 사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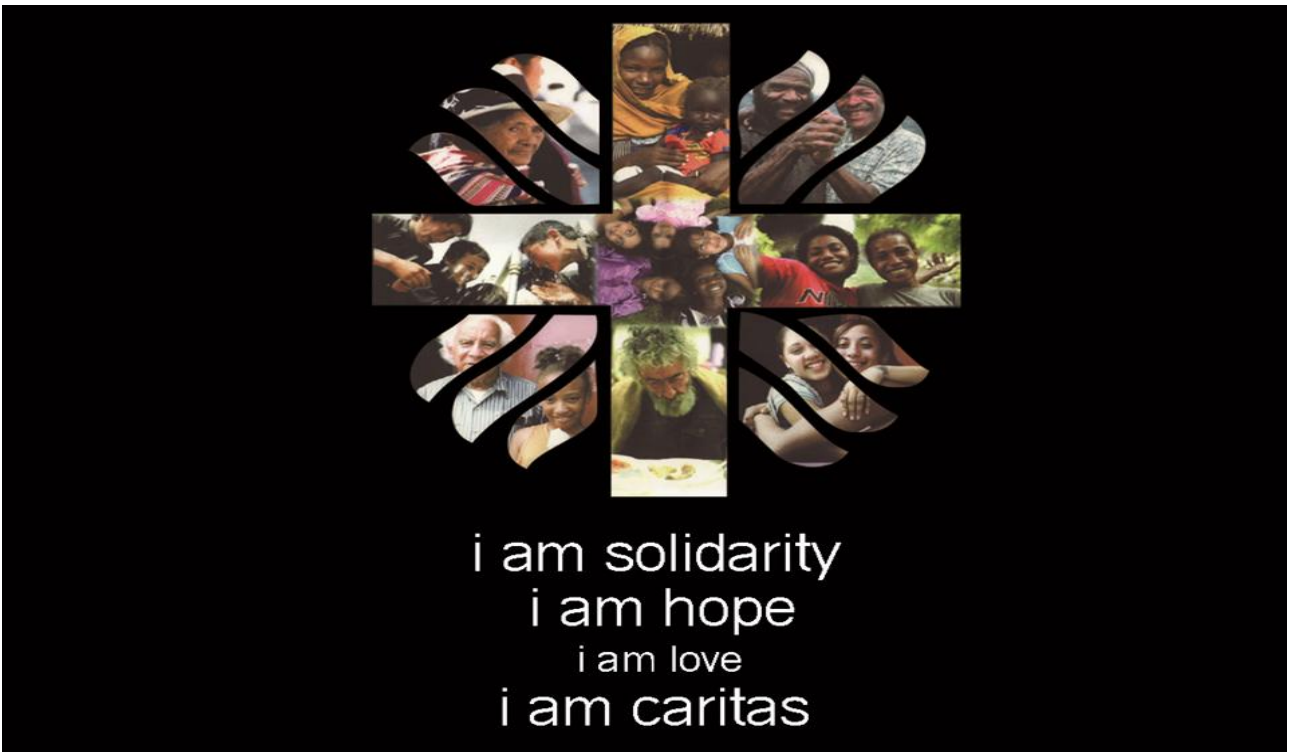
# | Caritas 소개 |



카리타스 캄보디아는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199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사랑, 평화, 연합, 나눔 그리고 형제애의 가치를 기반으로 캄보디아 카톨릭교의 공식적 사회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나라와 전 세계의 평화, 정의, 자선,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한 선의와 그와 같은 비전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과 연대로 국적이나 인종과 관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카리타스 캄보디아는 최근 9개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300개가 넘는 마을의 개발을 연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들이 활동하고 있는 간달 지역의 카리타스는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공동체 개발 프로그램)과 Youth Development Program(청년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CDP는 크게 대표성을 띠고 지역개발을 위해 힘쓰는 분(empowerment), 수도 및 위생시설 정비(Water and sanitation), 생계수단 프로그램(Livelihood program), 마을 재난 대책(Community disaster preparedness) 네 가지 활동을 세 마을에서 진행하고 있고 YDP는 사업과 일터 기반 구축(Enterprise/workshop base), 유스 클럽(Youth club for development), 직업 훈련 수업(Training class)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9개 지역 중 간달 지역에서만 YDP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The realization of a just society where rights of people are respected, integral development is promoted by building communities through an empowerment process" - 카리타스 비전



# | Staff meeting |

4번 정도의 미팅을 통해 스태프소개와 아띠소개를 하고 YDP, CDP 일정 및 프로그램을 정함.



## >> 미팅 일정

- 09월 05일: 까리타스 첫 방문
- 09월 08일: 전체미팅 (까리타스 소개, 스태프소개, 아띠소개, YDP/CDP 소개 및 프로그램 예산 설명)
- 09월 09일: 전체미팅 후 팀원들이 의견과 질문을 준비해 YDP 담당스텝 Thann, CDP 담당스텝 Samnang 과 일정을 조율함.
- 09월 11일: Thann과 의논해 YDP 일정을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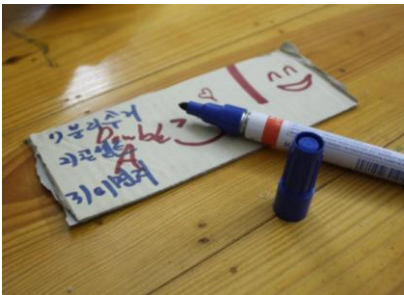
• 스태프미팅 후에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것은 소통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 다 같이 하는 것임을 생각했다. 그래서 소통에 관한 문제를 소통자, 개인의 고민이 아니라 팀의 고민으로 바라본 것이 좋았다.

• 소통자 역할에 대해 논의를 하다 팀 전체 역할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우리 모두 자기가 맡은 역할 '만' 잘하는 개인이 아니라, 서로서로 보충해 줄 수 있는 사이임을 자각했고 지금이 우리의 역할을 확인하고 그 범위를 정하는, 첫 단계이자 정비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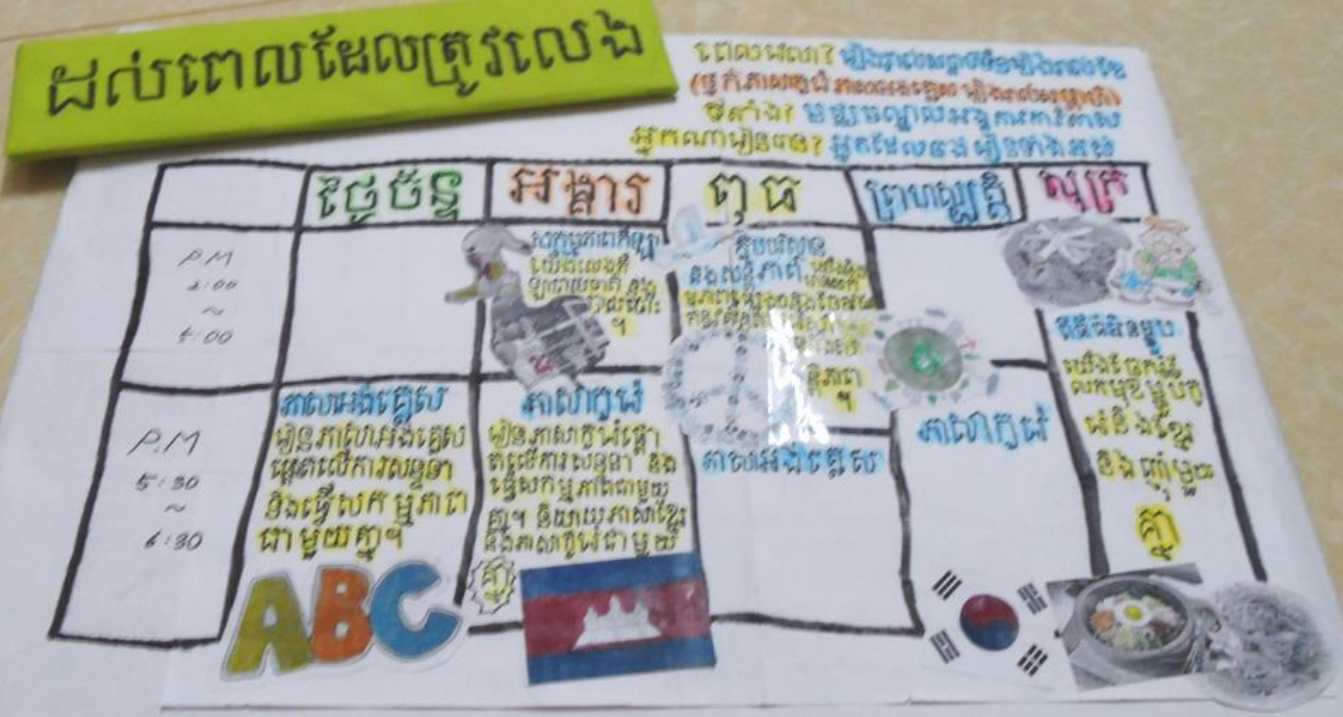


# | Atti week 준비 및 홍보 |

스텝과의 미팅 후에 아띠 위크 일정과 프로그램을 기획 및 홍보를 함.







▲ 완성한 아티워크 피켓

· Atti week 주요일정

	월	화	수	목	금
오전	YDP 활동 (비료제조, 수경 재배 등)			→	쿠킹파티 준비
오후1	스텝과의 미팅	스포츠클럽	평화/환경클럽	레스토랑 미팅	쿠킹파티
오후2	영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 기존의 한국어, 영어 클래스를 클럽으로 바꿔 일정을 짜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현지 학생들을 가르치기보다도 그들과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클럽이라는 방식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회의를 통해 ‘그들을 위한다.’라는 생각도 결국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고, 현지 학생들이 진짜 필요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결론을 내고 첫 수업날 학생들과 함께 정하기로 했다.

• 피켓을 제작할 때 재료확인, 사진검색, 영어번역, 크메르어로 번역 등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 필요했다. 게다가 이면지나 빈 박스를 활용해서 만든다고 작업시간이 많이 걸렸음에도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았다.

• 까리타스 센터 내에서 홍보를 할 때 유스들이 모여 있는 시간이 수업시간 밖에 없어서 수업 도중에 양해를 구하고 홍보를 해야 했다. 또 피켓을 만들기 위해 스텝들이 바쁜 일정 와 중에 크메르어 번역을 도와주셨다. 이런 우리의 부탁들이 스텝들의 일정진행에 방해가 되었을까봐 마음이 어려웠다.

• 우리들이 현지에서 기획하고 준비한, 첫 ‘일’이었기에 서툰 점도 많았고 과정도 오래 걸렸지만 그만큼 반성할 점도, 배울 점도 많았다.

# 우리들의 여선생

아띠 워크 홍보를 위해 판넬을 제작하던 중, 스텝 중 한명인 'Thann'에게 영어를 캄보디아어로 번역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제목 부분만 캄보디아어 발음 그대로 바꾸고 (예를 들면 우리가 'Let it play'를 '렛 잇 플레이'로 적듯이) 나머지는 캄보디아어로 번역해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웬일인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Thann이 종이를 주지 않았다. 마침내 종이를 받았을 때, Thann은 전부를 캄보디아어 "발음" 그대로를 영어로 바꾸어 준 뒤였다. 오랫동안 작업한 그와 오랫동안 기다린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허탈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에피소드를 계기로 우리는 친해지기 시작했고, 늘 눈치를 보면서 그에게 또다시 번역을 부탁한다. 고마운 Thann, 그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경미 카리타스에서 맡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Thann 일단 YDP를 담당하고 있고, Team leader 역시 맡고 있어요. 그 외의 직업 훈련 계획을 짠다든지 기술적인 부분들도 맡고, 학생 상담과 같은 일도 하고 있습니다.

경미 번역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Thann 그냥 우리가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일 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해야 할 일이 많기는 했지만, 아띠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홍보는 YDP의 시작이고, 그래서 중요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경미 캄보디아어 번역을 자주 부탁하게 되어 아띠들 끼리도 스텝들에게 의존하는 것 같다는 고민도 많았고,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Thann 미안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일들은 아띠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저의 학생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경미 그 에피소드 이후 많이 친해져서 아띠들이 Thann을 '네희루' (여선생)로 부르기도 하고 장난을 많이 치기도 해요. 혹시 기분이 나쁘지는 않나요?

Thann 모두 장난이잖아요.(웃음) 아띠들과 장난을 칠 때, '우리가 친하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서로 머뭇거리고 장난치지도 않는다면 우리가 친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경미 마지막으로, Thann의 꿈은 무엇인가요?

Thann 무엇보다도, 결혼.(웃음) 그 외에 일에서의 성공 같은 것들이요.

즐거웠던 인터뷰가 끝나고, Thann은 아띠들이 번역을 부탁할 때, 자신이 화났다고 걱정하는 것 같으며 '일할 때 표정이 굳어 보이는 것은 화나서가 아니라 원래 내 모습이다. 진짜다.' 라고 신신당부하였다. 카리타스에는 이렇게 우리를 늘 도와주면서도 장난끼 많은 Thann 같은 스텝들이 있어 즐겁다.

Thank you, Thann! 어쨌든, 네희루.



# | 이사음식 돌리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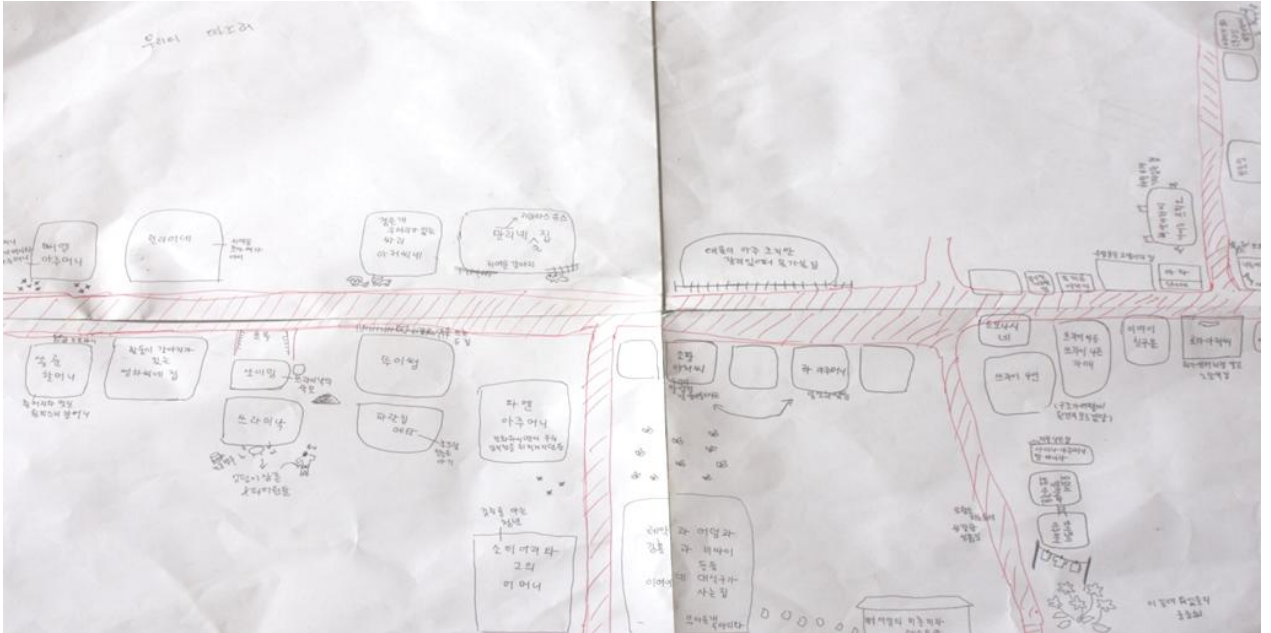
이사음식 돌리기: 따끄러 마을에 앞으로 함께 살 이웃으로서 이사음식(김치전)을 이웃에 나누며 인사드림.

- 며칠 동안 재료를 고민하면서 인사를 드리기 위한 크메르어를 준비하고 김치전을 돌릴 때는 안계셔서 인사를 못 드린 집은 다음날 다시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등 팀원들 모두 최선을 다했다.
- 인사를 하면서 김치전을 파는 것으로 오해하신 분들이 있어서 몇몇 팀원들이 걱정을 했는데, 그 오해를 오히려 친하게 지내기 위해 노력할 계기로 생각하기로 했다. 또한 김치전을 돌릴 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직은 많이 없어서 아쉬웠다. 앞으로 공유할 거리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현지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로 다짐했다.

- 김치전을 만들 때 요리를 잘하는 팀원 한 명이 주도해서 진행했지만 김치전 돌리기가 끝나고 나서 잘하는 한 사람이 주도하기보다 서로 배우면서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는 역할을 분배할 때 전문성 ‘만’을 보지 않기로 했다.
- 다른 집들과는 다르게 높다란 담과 쾡쾡 짓는 개가 있는 큰 집에는 우리도 모르게 위화감이 들어서 이사음식을 돌리지 못했다. 그리고 그 날 돌아와 팀원들과 함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도 결국 가지 않은 것이 아쉬웠다.



# 여백 많은 지도



## 사람을 기억하는 지도

김치전을 돌리고 마을 분들과 인사하며 함께 했던 일은 '마을 지도 만들기'였다. 마을을 모두 파악하겠다! 라는, 거창한 목표보다는 그저 마을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 방식으로 그려내기 위해서였다. 만나고, 인사하고, 서로의 이름을 주고받고, 이야기 나누던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과 그 모습들을 그려놓은.

## 상당히 주관적인 지도

그래서일까? 이 지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집 순서를 잘못 적어서 지도위에 화살표로 고쳐놓고, 집 크기도 제 각각이다. 우리 팀의 마음에 크게 남은 사람들과 공간들은 크게 그리고, 좋아하는 곳은 예쁘게 그린, 상당히 주관적인 지도이다. (적힌 내용들도 매우 주관적이다.) 아무래도 누군가가 이 지도를 빌려서 우리 마을을 돌아본다면 길을 잃어버릴걸 분명하다.

## 채워갈 내용이 더 많은 지도

아직 색깔을 입히지 못한 지도는 하얀 빈틈이 많이도 보인다. 그래서 이 '여백 많은' 지도는 우리가 채워갈 것이 더 많은 지도이다. 지금은 이면지 네 장을 이어 붙였지만, 곧 우리가 다니는 범위가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면 얼마나 더 커질지 모른다. 앞으로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더 많은 사람들과 마을의 모습들이 담기기를. 그것들을 이 '여백 많은 지도'에 담을 수 있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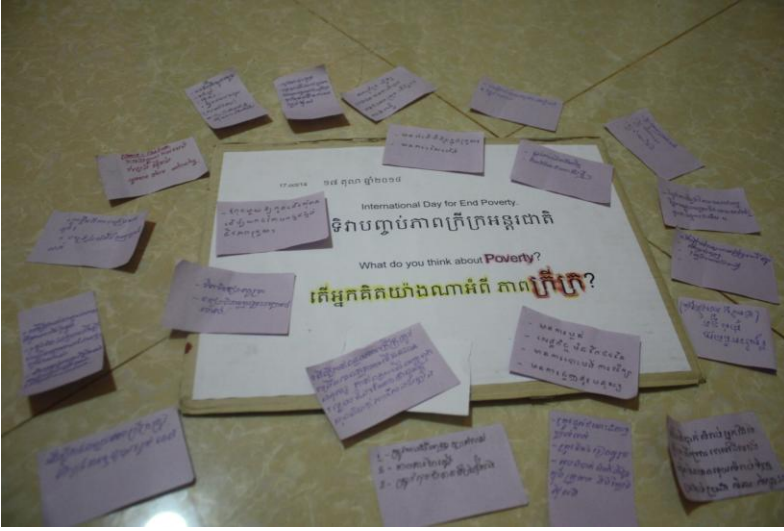


# | 사원에 가다 |

캄보디아의 큰 명절인 'Human right day'를 맞아 스태프들, 유스들과 파고다(사원)를 방문하고 점심과 저녁을 같이 먹고 춤을 추며 파티를 즐겼고, 그 다음날 스태프들과 바비큐 파티를 했음.

- 이 날은 그들만의 문화에 우리를 동참시켜준 날이었다. 또, 이야기해주고 다가와 줘서 친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 파고다 사원을 둘러본 뒤 배가 고팠던 한 팀원은 유스에게 부탁하여 밥을 받아 먹으려고 했으나 알고 보니 사원에서 받은 그 밥은 먹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주 하는 것이었다. 눈물을 머금고 밥을 다 시주하고 나서는 헌금까지 내야 했던 웃픈(?) 에피소드가 있었다.
- Youth 들과 파티를 할 때에 K-pop을 틀어주는 등 우리를 배려해주는 모습이 좋았고 캄보디아 특유의 느릿느릿하면서도 긴 시간동안 잘 노는 분위기와 흥을 느낄 수 있었고 더욱 깊게 캄보디아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 시간이었다.





## | End poverty campaign |

10월 17일에 있을 빈곤퇴치캠페인을 위해 사전준비를 함

- 1차 기획서를 받기 전에 했던 회의는 무엇을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적이었다.
- 취지: 마을주민과 친해지기, 빈곤에 대한 개념 확장하기
- 방법: 4주정도의 준비 기간을 갖고 마지막에는 페스티벌을 진행
- 페스티벌 내용: 리코더연주, 농구시합 같이 각 클럽의 활동을 보여주거나 부스를 운영. 음식, 음악, 데코레이션 모두 주민들과 함께 준비.

하지만 1차 기획서를 받고 그 안의 항목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생각하고 기획을 한 것인가? 이 마을의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는 한가?, 그 '문제'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나? 현 지인들은 이미 개념화장이 되어있지는 않을까? 라는 질문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현지인들이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듣기로 하고 까리타스 센터 내의 학생과 직원분들께 '당신이 생각하는 빈곤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다.



- 미술선생님 : 빈곤이란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 까리타스 센터 기사님 : 빈곤이란 원하는 게 많아지는 것이다.
- CDP 담당 스텝: 외로운 것도 빈곤이지만 기본적으로 밥을 못 먹는 것, 노동을 착취당하는 것도 빈곤이다. 이러한 질문을 CDP 마을의 경제적으로 가난한 주민 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Youth 1: 가난한 사람은 학교를 가고 싶어도 책을 살 돈이 없어서 못 간다.

그리고 유스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다가 CDP 스텝이 제안해주신 CDP마을에서도 빈곤퇴치캠페인을 하기로 했다. 마침 아띠들이 CDP마을에서 하는 일 또한 닭장짓기, 버섯집만들기를 통해 농부님들이 자발적으로 빈곤을 퇴치할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10월 17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시작으로 그 이후로도 계속 진행할 계획을 갖고있다.

- 10월 1일에 미팅으로 인해 까리타스 센터에 오신 CDP마을 주민분들께 ‘빈곤’에 대해 물어보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1차 기획서를 작성하였다. 이 날에 대한 이야기는 10월 보고서에서 만날 수 있다.

▼ CDP 마을 농부님들 및 스텝들과



# 더불어 함께살기





# | 장보기 |

식사재료 및 생활용품들을 사기위해 풋사 따끄마오와 럭키마트에서 장을 봄



- 한 번에 다섯명이 먹을 며칠 분의 장을 봐야했기 때문에 적응기가 필요했다. 처음에 장 볼 때는 과소비하는 것 같아 죄책감을 느꼈었다. 하지만 한 번 장을 본 것으로 며칠 동안 생활하기 때문에 과소비에 대해 너무 자책은 하지 말되 구매 리스트를 작성하고, 아껴쓰는 등 현명하게 소비하며 지내기로 했다.
- 럭키마트라는 곳에서 장을 보면 종류도 많고 깔끔해서 좋지만 전통시장과 마을슈퍼를 이용함으로 시세를 알게 되고 단골이 되기도 해서 마을 구성원이 된 그 기분이 더 좋았다. (비가 억수같이 왔던 어느 날엔 두 팀원이 온 몸으로 비를 맞아가면서 감자와 양파를 사왔던 적도 있었다.)
- 럭키마트 2층에는 럭키버거라는 햄버거 가게 있다. 럭키버거를 처음 가게 된 날 우리는 햄버거를 먹으면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국내훈련 때 meatless day(고기없는 날)와 햄버거커넥션 등을 들은 사람으로서 이곳까지 와서 햄버거를 먹는 것에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한 게 또 다시 불편하기도 했다. 또 프놈펜에서 스시바를 갔다가 커피숍을 갔을 때 이곳은 이미 캄보디아가 아니었고 그 상황에 우리 팀 전체는 자책감에 빠졌다. 하지만 점점 이곳에 적응을 하고 우리의 소비행태를 계속해서 돌아보는 습관을 통해서 더 잘 소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고 앞으로 자각은 하되 자책에 빠지는 말자는 이야기를 팀원들과 나누었다.
- 이곳은 “편하려면 얼마든지 편할 수 있다.”는 말의 실현지가 아닐까 싶다. 들어는 보았다. 3분 춘천닭갈비.



부록 #3 캄보디아 식사 후기

#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 食口

같이 밥을 먹는 것,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이곳에 와서 새삼 깨닫게 된다.

이곳에 도착해 겨우겨우 짐을 풀고 우리가 처음 한 일은 어름네 가족을 초대해서 함께 밥을 먹은 것이다. 솔이 작아서 두 번을 나누어 만든 스파게티. 그래서 먼저 만든 통통 붉은 스파게티 다섯 그릇과 방금 만든 따듯한 스파게티 두 그릇을 식탁에 놓고 기다렸다. 스파게티를 처음 먹어본다는 쓰랄레약은 먹는 내내 증안-(맛있다). 그 말을 듣고서야 마음 편하게 식사를 시작하는 권희오빠.

그 다음 식사자리에선 어름네 부부가 대나무생선구이를 가져왔다. 그 음식의 향은...그 향은... 결코 먹지 않으리라 생각했건만 그래도 한 젓가락, 두 젓가락 갖다 대려고 마음 쓰는 우리 팀원들을 보고 나도 먹는다. 결국 남았을 때는 (먹지도 못 할 거면서) 차마 버리지 못하고 냉장고에 넣는다.

시엠립 까리타스에 갔을 때도 기꺼이 그들의 식구가 되기를 청했다. 밥과 반찬을 먹다가도 결국엔 같이 먹는 사람의 이야기, 웃음, 마음으로 배가 불러온다. 스태프들과 밥을 먹을 때도, 유스들과 간식거리를 먹을 때도, 어름에게 요리를 배울 때도 조심스럽게 '증안?' 이라고 묻는 그 얼굴을 보면 낯선, 입에 맞지 않는 그 타지음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무엇을 먹느냐' 보다 '누구랑 먹느냐' 가 더 중요해지는 이 경험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글 박동호 <hyovely58@gmail.com>



# | 회의, 일지작성 그리고 둘러앉기 |

하루 일정을 정리하고 안건에 대해 회의하고, 둘러앉기를 진행하며 생활함. (\* 둘러앉기는 다 같이 둘러앉아 서로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



- 국내훈련에서 일지작성, 회의, 둘러앉기를 꾸준히 해 와서인지 국내훈련의 연장선으로 느껴졌다. 그때에 비해 둘러앉기 시간은 단축됐는데, 아마 좀 더 서로를 배려하고 성숙한 방식으로 다가간 덕분인 것 같다고 생각한 팀원이 있었다. 하지만 국내훈련 때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못해서 아쉽다고 생각한 팀원도 있었다.
- 일지를 쓰기 전 논의 할 내용을 미리 생각하고 정리해 오기로 약속했는데 잘 지켜지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 그리고 남은 이야기: 국내훈련 때부터 유명한(?) 1일 1갈등의 두 주인공들이 이곳에 와서는 30일 無갈등을 실현했다! 중간에 또 다른 2인이 1일 3갈등을 시작하며 관계의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둘러앉기를 통해 다른 팀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관계를 금세 회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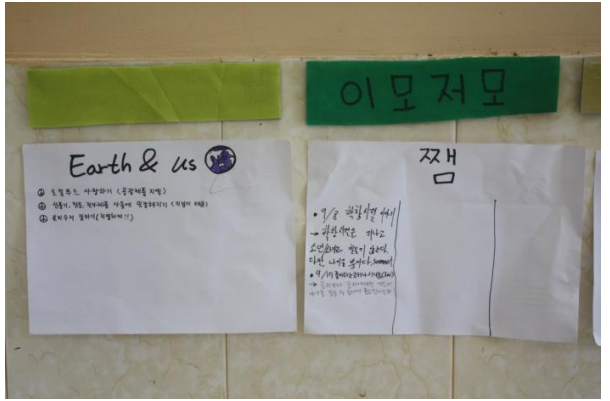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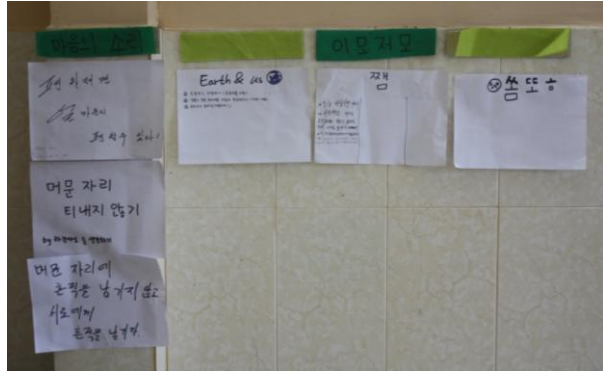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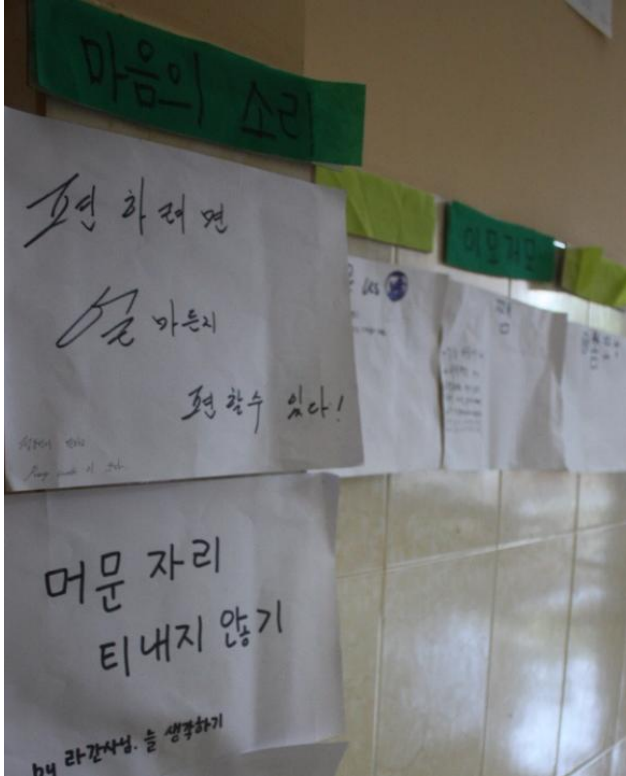
▲1일 3갈등의 두 주인공

# 우리가 비춰지는 곳

우리의 이야기가 담길 곳이 필요했다. 그게 노트북이나 공책 같이 비밀스러운 공간은 아니다. 우리가리 매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라온아피 수칙이나 생활 규칙같은 것도 아니다. 그저 우리 깐달 팀만의 모습, 깐달 팀의 삶, 우리의 이야기가 담긴 게시판을 만들었다.

게시판은 우리의 마음을 적신 명언이나, 잠언 기억해야 할 말들을 적어놓은 '마음의 소리', 환경과 관련된 약속을 적는 'earth & us', 자유게시판처럼 사용하는 '이모저모',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 반성하는 글을 적는 '쏟음(크 메르어/미안합니다)'로 구성되어 있다.

항상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깐달 팀의 게시판을 만나보았다.



### 안녕하세요. 게시판 아저씨, 왜 여기 게시나요?

동동과 미미가 처음 아이디어를 내서 저를 만들었죠. 처음에는 그냥 재미있을 것 같다고 만들었는데, 점점 저의 역할이 커지는 것 같아요.

### 역할이 커진다는 게 무슨 뜻이죠?

처음에는 마음의 소리와 이모저모밖에 없었는데, 점점 환경 수칙이나 사과할 일을 적는 칸 등 다양한 칸들을 늘려가더라고요. 저를 더 잘 활용하는 거죠.

### 깐달 팀원들이 당신을 많이 사용하나요?

처음에는 글도 많이 쓰고, 회의도 많이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관심을 별로 안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제가 거실 벽에 있어서 그런지, 적어놓은 것들을 매일 읽는 것 같기는 해요.

### 자유게시판처럼 사용되는 이모저모 칸에 글이 별로 없네요?

그냥 자유로운 글을 적는 칸이라기 보다는 짬이나, 까리타스 일, 빈곤퇴치캠페인처럼 우리가 평소예 정기적으로 하는 활동들에 대한 자유로운 글을 적는 곳이에요. 아직 짬 말고는 구체적인 활동이 시작되지

않아서 쓸 말이 별로 없겠죠.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거나.(웃음)

### 앞으로 깐달 팀에게 어떤 존재가 되고 싶나요?

그들이 저를 많이 사용해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SNS처럼 저에게 적혀진 말들에 맞춰서 생활하게 되는 건 싫어요. 자신들의 진실된 모습을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있는 이유도 '우리 모습을 우리가 보고 되돌아보는 것' 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저를 너무 의지하지는 않았으면 해요. 저는 그들의 감시자가 아니고, 그저 자신들의 삶을 기록해놓고 가끔 지나가다 보고 생각만 해줘도 충분하답니다.

### 깐달 팀에게 바라는 점이 있나요?

앞으로 그들이 저를 많이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 5개월 후에는 마음의 소리도 많이 바뀌어 있고, 사과할 일도 많아져 있겠죠? 그 때 다시 한 번 만납시다.



# | 이야기모임, Jam! |

잼은 즉석합주를 뜻한다. 즉석에서 각자의 연주가 모여 잼이 되듯, 팀원들 각자의 이야기들이 모여 어우러지는,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뜻한다.



- 취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기 위해서 강제 참여가 아닌 참여의 자유가 있음.

나를 들어내는 이런 시간: 나들이, 알아가는 시간: 알시, 우행시, 서시, 길들이기(어린왕자), 같이 살기 등 제목후보가 많았지만 여인이 제안한 ‘잼’이 이름으로 채택됨.

- 1차 잼(태운): 서로의 학창시절 및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

(잼장의 한마디: 우리 모두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2차 잼(여인): 의미가 있거나 평소 좋아하던 글귀를 가져와 롤링페이퍼처럼 돌려보는 시간을 가짐.

(잼장의 한마디: 마음에 드는 글귀들이 많아져 기분이 좋다)

- 우리가 함께 할 시간을 내는 것이 좋다. 서로 시간을 공유하며 물들어 가는 것 같다.

- 잼은 행동 이상의 무언가인 것 같다. 말로써 듣고 친해지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9.20-26

## SiemReap

부록 #5 좌충우돌 시엠립 여행기





우리는 캄보디아의 휴일을 맞아 휴가를 받았고, 캄보디아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더 알고자 시엠립을 방문하게 되었다. 화장실 옆자리에서 하루 종일 버스를 타느라 고되었지만 농촌 풍경을 감상하고, 해가 중천에서 지평선 끝에 걸리는 모습, 그리고 새까만 밤하늘에 종종히 박힌 별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해하기도 했다. 그렇게 우리는 10시간을 달려 시엠립에 도착했다.



## 1. 여행방식에 대한 고민

우리는 첫 번째 고민에 직면했다. 특종을 타고 관광을 하며 목적지에 더 치중하기보다는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목적지에 가는 과정에서 오는 행복을 얻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그리하여 철중안으로 먼 거리는 특종을 타고 이동한 다음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도보로 이동하며 두 마리 토끼를 잡기로 했다.

### # 첫째 날

시엠립을 돌아보기로 결정한 후, 로얄킹덤에서 캄보디아 문화를 즐기고, 올드마켓타운에서 전통시장을 구경하고, 톤레삽 호수에서 노을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 했다.

## 2. 기부에 대한 고민

우리는 로얄킹덤에서 캄보디아 학생들을 위하여 모금운동을 하시는 분을 만났다. 유창한 한국어 솜씨와 기부 목록에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적혀 있었고, 소정의 금액이라도 기부해 주길 바란다는 말을 했다. 우리는 물질적인 기부도 물론 필요 하겠지만 우리 활동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기부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나중에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이야기와 고민들을 나누었다.

### # 둘째 날

우리는 앙코르와트에 가기로 결정을 했다. 앙코르와트까지는 특종을 타고 가되, 앙코르와트 내부에서는 걸어서 여행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나름대로의 방식을 찾아 여행을 했던 하루였다. 그 유명한 앙코르와트 건물을 보고 안에 있는 시장도 구경하고, 앙코르플, 바이온사원까지 우리 마을에서 볼 수 없었던 캄보디아를 느낄 수 있었다. 나이트마켓에 가서 저녁식사도 하고 시장 구경도 하며 재밌는 시간을 보냈다.



### Episode

#### So I want servies COLA!

우리는 시엠립의 유명한 야시장에 도착해 허기를 달래려 서둘러 식당에 들어섰다. 메뉴를 보며 고민을 하다 김모씨(남,20)는 가장 맛있어 보인다는 소고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의 음식은 누구의 음식보다 빨리 나왔고 맛있었다. 허겁지겁 먹던 그의 턱은 갑자기 멈추었고 그의 입에는 반짝거리는 수세미 조각이 물려있었다.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수세미 조각을 들고 집원에게 다가갔다. 김모씨는 김모양(여,20)과 함께 약 5분 정도 집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갑자기 김모양은 썩씩거리며 자리로 돌아왔고 김모씨는 흡족한 표정으로 콜라 한 병을 들고 돌아왔다.



사건은 그랬다. 수세미 조각을 본 집원은 야채라고 우겼고 그로 인해 화가 난 김모씨는 김모양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김모양은 김모씨를 도와 영어로 열심히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설득 당한 집원은 음식 값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 되려던 찰나 김모씨는 명대사를 뽐내었다. No that's okay I will pay, but it's in the food " So I want servies Cola !!!!! " 그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된 우리는 정말 한참을 웃었고 이 글을 적고 있는 지금도 웃고 있다.

### # 셋째 날

걸어서 여행을 해서 좀 지친 몸도 달랠 겸, 우리가 머무는 숙소 주변도 알아가고 싶어서 숙소 주변을 탐방하기로 했다. 숙소 주변에서 식사도 하고 카페에 가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겼다. 카페 사장님과도 친하게 이야기하고 지내다보니 시엠립도 우리 마을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진 시간이었다.



### # 넷째 날

우리의 여행방식에 대해 고민한 결과, 자전거를 빌려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조금은 먼 거리였지만 어쩌면 낯선 도시인 시엠립에서 자전거를 타며 여행을 하니 색다른 기분이 들고 상쾌해졌다. 캄보디아 민속촌에 도착 해서는 캄보디아 전통결혼식, 전통무용, 전통무술까지 캄보디아의 전통 문화를 흠뻑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저녁식사는 까리타스 직원, 그의 가족과 함께했다.

## 3. 외국인 프리미엄!?

우리는 시엠립에 도착하고 다시 돌아오기까지 상인과 끝없는 흥정을 해야했다. 그 이유는 즉슨 외국인이라는 이유! 자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광지에 들어가는 비용만 아니라 물,옷, 심지어 밥값 까지도 자국민 보다 훨씬 값 비싸게 받고 있었다. 물가를 어렵듯이 알고 있었던 우리는 그들과 흥정에 흥정을 거듭하며 나날을 보냈다.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우리도 시엠립 상인들처럼 차별 받고 있진 않았을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되돌아보게 된 계기였다.

### # 다섯째 & 여섯째 날

같이 여행한 날이 너무 좋았지만 각자 하고 싶은 것이 달라 다른 방식으로 여행을 해보기로 했다. 한 팀은 앙코르와트를 더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고, 다른 팀은 자전거를 빌려 시엠립 시내를 돌아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한 팀원은 아파서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길, 빨리 도착하고 싶은 마음에 탄 VIP버스는 도로 한 복판에 멈추어 섰고 우리를 한 시간 동안이나 기다리게 했다. 그렇게 우리는 우여곡절을 끝에 8시간에 걸쳐 우리의 집으로 돌아 올 수 있었다.

## Atti bottle 의 여행



# 그대들의 이야기





# 착한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름: 김경미(Mimi, 20)  
 자주 출몰하는 지역: 흔들의자, 풀 숲  
 습성: 동네북, 맨발로 다님(맨발의 청춘), 잘 속음, 감성이 풍부함(잘 웃음), 눈치없기 1등  
 천적: 김태운(태무룩), 이권희(권드렁)  
 가족관계: 이권희(父), 박동호(삼 쌍둥이) ※이권희와 박동호는 부녀지간이 아님!  
 역할: 커뮤니케이터



이름 김태운(Sammot, 20)  
 자주 출몰하는 지역: 농구장, 새벽 2시의 주방  
 습성: 엄살이 많음(김엄살), 바지가 잘 터짐(1일 1터짐, 꼬매면 또 터짐), 멍 때림, 늘 배고픔(Stay hungry), 성의 없는 빠른 사과 1위  
 천적: 모기, 개, 김홍(어덤 조카, 3세)  
 자주 찾는 것: 전기파리채, 버물리  
 역할: 미디어, 전기사용 지킴이



이름: 박동호(Dongdong, 21)  
 자주 출몰하는 지역: 한국사람 없는 곳, 여자 기숙사 침대 위  
 습성: 밀당녀(물건을 주는척하다 안 주는 장난을 자주 함), 감성이 풍부함(울지는 않음), 패션리더(현지 원피스 섭렵&노란색 아피티가 잘 어울림), 현지어 1등  
 케미: 이권희, 탄(네끄루), 어덤(유일하게 동동에게만 웃어줌)  
 역할: 서기



이름: 이권희 (Preap sovath, 24)  
 자주 출몰하는 지역 : 모기장 안, 평상 위  
 습성: 잘 까먹음 (붕어), 한식을 잘 만듦(취사병출신), 일어나는 척하며 다시 잠 듦, 길을 정말 잘 찾음, 불임성 1등  
 천적: 찡찡(도마뱀)  
 역할: 회계, 타임키퍼  
 자주하는 말: 경미야!



이름: 이여인(Ini, 25)  
 자주 출몰하는 지역: 와이파이 존.  
 좋아하는 것 : 카페 따끄뜨꺼(캄보디아식 커피음료)  
 습성: 때때로 성질이 고약함. Cool녀 (서버쿨보다 클함), 잡식(유일하게 편식을 하지 않음), 식사당번시 항상 카레를 함 (카레여왕) 최근 현지어 1위 자리를 노림 (현지어 2등), 팀내 싸움1등!  
 자주하는 말 : 더 할말있어? 끝!

## 경미

'나의 스무 살'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나의 열여덟' '나의 열아홉'이라는 말들을 좋아해왔고, 내년에는 '나의 스무 한 살'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내가 되어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 참 설렌다. 스무살 9월의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되뇌인다 그게.

그러다보니 깨닫는 신기한 사실은, 한국에서의 이십년보다도 캄보디아에서의 한 달동안 나의 더 많은 모습들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나조차 알지 못했던 나의 또 다른 감성들, 감정들, 그런 모습들, 처음 느껴보고 처음 알게 되는 것들이 정말 많다. 이전에는 한번도 내가 알던 세상이 좁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고, 지금도 그것이 좁지만은 않다. 나는 내 나름대로 내가 아는 것들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알며 그 안에서 살아왔으니까. 다만 내 세상 밖에 있는 것들 역시 나의 일부일 수 있다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 신기하다. 캄보디아에서 김경미라는 사람의 어떤 부분을 찾아가고 있다.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부분을 말이다. 그렇게 '나'라는 사람을 알아가고 다른 사람들까지 알아가는 이 과정이 행복하다. 곰돌이 푸가 '매일이 행복하지는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라고 말할 때, 멋지다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요즘은 행복한 일이 차고 넘치면 다시 그 매일 매일도 행복하게 남는다는 걸 깨닫는다. 행복해서, 행복하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우리 집 흔들의자, 어딜 가도 늘 그 자리에 있어 위안이 되는 코코넛 나무, 눈이 시리도록 많은 이곳 밤하늘의 별, 그리고 여기서 만난 모든 사람들, 또 점점 더 나의 마음에 더 크게 남아가고 있는 내 팀원들.. 함께 9월을 보냈던,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에게 그 자체로 감사하고 싶다.

나는, 행복한 스무 살을 보내고 있다.







## 권희

#0. 쪽 써바이? 행복하세요? 우리가 안녕을 묻듯, 이곳에서는 상대방에게 행복을 묻는다.  
나는 이 질문이 이곳에서의 시간을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다.

#1. 시엠틀에 가면서 따프마오와의 물가 차이에 놀랐다. 이유는 다만 내가 외국인이라는 것.  
처음에는 반감이 들기도 했지만 이 일로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 대우를 하고 있지 않았는가.  
앞으로도 지속해서 고민해 보려 한다.

#2.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며 서로에게 물들어 가자며  
언젠가 나에게 '물든다는 것은'이라는 아름다운 시를 선물해 준 한 팀원이 있었다.  
서로를 이해 할 수 없었던 시간들, 나날이 의견 다툼을 하며 지냈던 날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같이 살아가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모습이 너무 좋다.

우린 서로에게, 또 이곳에 물들어 가고 있다.  
이웃 주민들과 반갑게 인사하며 출근하는 길도, 스텝들과 안부를 물으며 자리에 앉는 일도,  
짙 짙을 보며 놀랜 가슴을 달랠던 순간들도 이제는 익숙한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전통 시장에서 상인들과 익숙하게 흥정을 하고, 또 단골이 된 우리를 반가워하시며  
감자하나 양파하나 더 넣어주시는 그 인심에 행복해지는 우리가 점점 더 캄보디아에 물들어 가는 게 느껴진다.  
가끔 더운 날씨에 지치기도 하지만 행복한 나날에 감사하며,  
이곳에서 점점 더 나를 물들이고 싶다.

## 동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다. 하지만 아직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되기까지,  
기다린다. 언젠가는 당신에게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만 그 또한 생활에,

시간에 휘발되어 쉬이 사라진다.

그렇게 하고서도 끝내 남는 것들이 이야기가 되겠지.

그때를 기다린다. 혹은 이야기가 나를 기다린다고 말해도 될까.

어쩌면, 당신이 나를 기다린다고 믿어도 좋을까. 당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

- 9월 PAPER p.104 중







## 여인

오랜 시간 기다린 후에 도착한 캄보디아, 엄청 낯설고 '다르다'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될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부터 나에게 그리 낯선 나라, 낯선 도시였던 건 아니었다. 나에게도 환경도 그리 낯설지 않았고 사람들도 그리 낯설지 않았다. 내가 낯설다고 느끼게 되는 이유들은 나를 외국인으로 보는 시선, 언어가 달라서 소통이 어려울 때였다. 그래서 조금은 낯설었지만, 다른 피부색을 가졌음에도 차별 없이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그리 낯설지만은 않은 감사한 한 달이었다. 국내훈련에서 국제 활동을 나가서 가장 중요한 건 어쩌면 팀원들과 잘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던. 한 달동안 생활하면서 그 말이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 앞으로 4개월 더, 같이 살아갈 팀원들에게 감사할 줄 알고 미안할 줄 알며 함께 잘 살아가고 싶다.



## 태운

**드디어** 캄보디아 땅에 발을 디뎠다! 라고 생각할 즈음에는 앞으로 남은 5개월이 참 길 것만 같았다. 하지만 에세이를 쓰고 있는 지금 생각해 보면 9월이 참 빨리도 지나갔다. 비행기에서 내리고 깐달 따프마오에 있는 할머니집에서 지내며 시애틀에도 다녀왔지만 그 일들이 너무나도 짧았던 순간으로 다가온다. 그건 아마도 나와 우리 팀이 이곳에 적응하기 위해 모든 신경을 다 쏟았기 때문이 아닐까?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9월이 거의 끝나가고 보고서 제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한 달 간 깐달 따프마오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의미일까? 하는 생각을 하며 보냈던 한 달이었다.

집에서는 직접 손빨래를 하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해먹어야 해서 좀 힘들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서로 적응하며 잘 지내고 있다. 우리가 일하는 기관인 카리타스도 집 바로 옆에 있어서 딱히 불편한 점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다. 굳이 불편한 점을 말하자면 모기를 비롯한 벌레가 많다는 것 정도?... 그것도 이제는 참을 만 하다.

**순간.** 따프마오에서는 마을사람들 대부분이 서로 친하고, 가족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정겹게 지내는 것 같다. 우리에게도 역시나 정겨운 곳이 되고 있다. 정겨운 그들에게 녹아들기 위해 했던 이사 음식 돌리기가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아피워크 홍보와 빈곤퇴치 캠페인은 아직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팀원들과 같이 회의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나 재미있었고, 처음에는 티격태격하던 서로의 의견이 맞춰져 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내 마음속에서는 9월 간 했던 모든 일들이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한 하나의 추억으로 자리잡은 것 같다. 우리가 일하는 카리타스에서 아직 제대로 일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감상을 딱히 생각나지 않는다. 그저 이 나라에서, 이 마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적응하려는 노력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간다.

**질문.** 나에게 '지금 행복한가?' 라고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Yes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내가 라온아띠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비행기 값이랑 생활비를 받으면서 캄보디아라는 곳에 5개월이나 지낼 수 있는 게 정말 멋진 일인 것 같다.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사진이나 영상 촬영할 것이 많아서 좋고, 외국에서 살면서 얻는 경험이 참 값지다.

하지만 그런 많은 이유들이 무의미할 정도로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선물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다. 그건 바로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다. 내가 오를거려서 이런 말 잘 하지 않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팀의 사람들이 참 좋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도 서로를 '가족'이라고 칭하고, 정말 가족처럼 서로를 생각하고, 챙겨주고, 또 끊임없이 다룬다. 다투는 것, 갈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했던가.. 맞는 말이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살지만, 그렇다고 갈등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 갈등은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으면 오히려 감정을 닳게 만들 수도 있는 것 같다.

매일 매일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싸우는 우리의 모습이 가끔은 실증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존재가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최근에 sns에서 '사랑은 상처를 허락하는 것이다.' 라는 글귀를 읽었다. 뻔한 말이지만 이 곳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말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있다. '안다는 것은 상처받는 일이다.' 라는 말처럼 우리는 서로를 알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상처가 많이 생기고 상처를 많이 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상처를 건드릴 수 있고, 자신의 상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또 나는 이들로 인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는지 점점 느끼고 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깐달 팀원들, 카리타스 직원과 학생들, 마을의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다. 앞으로 내가 사랑할 남은 날들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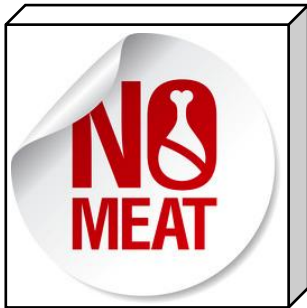
# 그리고 남은 이야기



**라온아띠**  
Raon Atti

##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캄보디아 식당을 가도 잘 먹는 팀원이 있다면 못 먹는 팀원도 있다. 이는 매우 당연한 일이다. 입맛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르니까. 하지만 '라온아띠'로서 못 먹는 것은 왠지 당연하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부끄럽기까지 하다. 국내훈련 동안 이런 걸 배운 게 아닌데 어쩐지 나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라온아띠가 우리의 자유이자 우리의 감옥. 이 일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 그냥 이 문제를 앞으로 4개월 동안 마음에 두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기다려보겠다.



**고기없는 날**  
Meatless day

## 우리는 왜?

출국캠프 때 밋리스데이를 듣고 큰 반감은 없었다. 일주일에 하루쯤 고기를 안 먹는다고 죽을 쏘냐. 라고 말했지만 우리, 여기 와서 한번도 밋리스 데이를 지킨 적이 없다. 약간의 반성과 함께 매주 수요일에 있을 환경클럽에 맞추어 밋리스웬즈데이를 하자고 했다. 하자고만 했다. 말은 참 쉽다. 한 팀원이 늦었지만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스스로 납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늦었지만 물어본다. '우리는 왜 고기 없는 날을 보내야 할까?'



**인터넷**  
Internet

## 까뚝! 까뚝!

우리 팀은 노트북이 3대다. 세 번째 노트북은 수많은 영상과 사진을 백업할 용도로만 사용하려 했으나, 인터넷을 한 것도 사실이다. 마음만 먹으면 잠시 한국에 있는 것처럼 가족과 친구들과 연락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런 모습들을 자각하게 되면서 인터넷 사용을 자제하자는 이야기가 꾸준히 팀 내에서 나왔고, 앞으로도 서로가, 개개인이 자제하기로 했다.



**분리수거**  
Separate  
Collection

## 이제 좀 하려고 했더니

수원에서의 국내훈련을 통해서 페트병에서 비닐을 떼내고 플라스틱 통의 스티커를 떼내는 등 어느 정도 분리수거에 일가견이 생겼다. 하지만 마음은 있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버렸다. 국가전체에 플라스틱, 캔, 병 이외에 분리수거 시스템이 없어서 집에서 아무리 나머지 쓰레기를 분리해도 결국에는 한 곳에 버리게 된다. 아쉬울 뿐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고민해 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 보려 한다.



## 물든다는 것은

심가연

바다가 노을을  
껴안는 것이다.

노을이 바다를  
믿는다는 것이다.

그대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대가  
살고 있다는 것이다.